

11월의 기도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27장 28절>



1. 천국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신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주님의 품에서 평안히 쉬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뤄 놓으신 업적과 목회 철학을 잘 계승하여 복음전파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하나님 아버지, 항상 믿음 안에서 기도에 힘쓰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과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주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시며, 천국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4.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여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5. 세상의 영화를 따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6. 추수감사절을 맞아 추수의 기쁨과 함께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수확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2021년을 마무리하며 예배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정경자, 함석숙, Imabong Odutola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중보기도의 힘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아버지가 쓰러져서 뇌진탕으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뇌에 부종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이 광주에 있어서 제가 기도해 줄테니 손수건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은 아버지 옆에 있어야 하니까 못 오고 딸의 친구가 대신 손수건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수건 위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자매님의 편지가 다시 보내져 왔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1주일 넘기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그 손수건을 얹고 기도하자 아버지가 한 달 동안 누워 계시다가 소천 하셨는데 그 한 달 동안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감사 편지를 보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매님을 전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손수건 심부름을 한 친구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딸과 딸의 친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딸의 친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어머니의 딸이 심부름 때문에 손수건을 가지고 저에게 왔다가 기도를 받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4부 성가대 찬양대원으로 섬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보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게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따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위대한 일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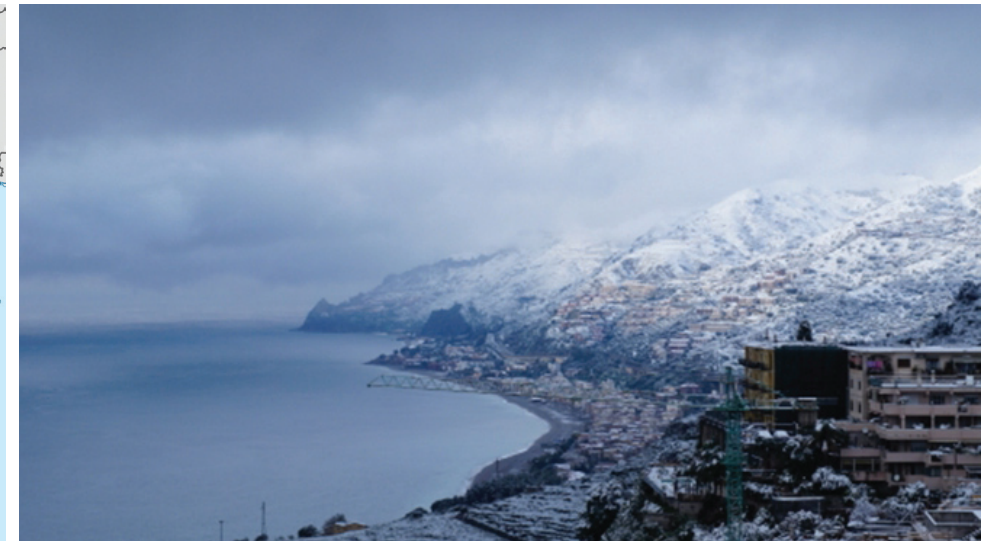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CEM 시선으로 되돌아보는 해외 성회 발자취

1998년 이탈리아 시실리성회



1990년대부터 열방을 향한 선교가 더욱 활발해져갔던 시기였다. 총재 조용기목사는 1999년 인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계선교를 더 열심히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는 21세기를 앞두고 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선교사 양성기관을 설립하여 세계 전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편 성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지원하는 선교전문기구 DCEM의 창설은 지구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발현이었다.

DCEM은 성회추적측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조용기 목사의 성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은 물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세계 여러 선교단체들과 활발한 선교활동을 전개해갔다. 미국,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제 3세계를 포함하여 부흥이 침체된 선진 복음국가들에서의 성회도 지속적으로 개최

해오면서 오순절 순복음의 신앙으로 뜨겁게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1998년 3월 이탈리아 시실리에서 개최된 성회는 연인원 2만여 명이 참석한 성회로 이탈리아 개신교 역사상 가장 많은 군중이 모여 회개하고 신유를 체험하는 기적의 현상이었다.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 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신교를 외국의 종파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개신교 복음화율은 1%를 넘지 않는다. 1997년 이탈리아그리스도교연합 초청으로 북부 리미니 성회에 참석했던 총재 조용기목사는 이듬해 시실리에서 열릴 성회에 참석할 것을 초청받았다. 현장에서 바로 수락하게 되어 방문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1998년 3월에 이틀간 개최된 이탈리아 남부 시실리 성회였다. 이탈리아 시실리 성회에 대해 38년간 총재 조용기목사를 수행한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현 순복음동경교회 담

임)는 예년과 달랐던 당시 시실리의 급변한 날씨로 인해 겪은 에피소드를 통해 '선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교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라는 선교의 목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성회였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시실리성회 관련 일화 소개는 본지 3면 『선교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기사 참조)

한편, 총재 조용기 목사는 이탈리아 복음화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성회를 인도한 적이 있다. 시실리 성회 외에 1991년 11월 로마에서 '제9차 그리스도인 대성회'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으며, 1997년 리미니에서 열린 성회에서 메시지를 전했다. 가장 오래된 개신교단이 있어도 복음의 불모지인 이탈리아의 사람들이 신비주의와 사단순배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삶의 심판의 두 가지 근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 (중략) ...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아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 아니라 아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창세기 18장 18-21절)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형벌을, 의인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죄인을 무더기로 함께 심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반드시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공의로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50명 때문에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일 소돔 성을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창 18:26)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모든 백성들에게 공휼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은 의인 덕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섯 명이 부족해서 45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4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3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그렇다면 20명만 있어도 용서해주시겠습니까?” “2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나중에는 ‘의인이 열 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열 명만 있어도 심판 안 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의인의 수를 오십 명에서 열 명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이 심하게 타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아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 엄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효과가 없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없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없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보시고 그곳을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없으시는 중에 롯을 구원하

셨던 것입니다. 롯의 신앙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의인 아브라함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롯의 생명을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중보기도는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 받기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물론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여러 차원이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를 흘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네 죄를 다 갚았으니 너를 믿고 나를 믿고 용서함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산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회개의 연속일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의미를 한 가지에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을 삶의 원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모두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정욕이 넘쳐나 매우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진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그곳에 두 천사를 보냈는데 그들이 소돔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천사를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롯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롯에게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창 19:5)고 말합니다. 이것만 봐도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 당연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는지 그런 음란하고 방탕한 곳을 택하여 그곳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에 롯이 그 영혼을 유지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완전히 파멸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심판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 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창 18:23-24)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좇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신앙과 신학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며 가난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전파했다. 청소년 시절 폐 질환으로 인해 병마와 싸우고 성령의 역사로 치유를 체험한 조용기 목사는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조용기 목사의 설교는 고통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통해 꿈과 희망을 되찾아 주었다. 조용기 목사는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보물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라 우리 가슴속에 감추고 있는 꿈과 희망”이라고 전하며 “주님께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꿈을 크게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꿈과 희망이 사라지면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국가도 쇠락해지고 만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절대 희망을 가질 것을 선포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에 근거하여 제시한 ‘오중복음 삼중축복’, 실천 가능한 ‘4차원의 영성’을 제시하며 순복음의 신앙을 발전시켜 나갔다. 조용기 목사의 목회 철학인 오중복음이란 십자가 신앙을 이론과 교리로 정리한 것으로 성경의 중요한 다섯 가지 주제인 ‘중생·성령 충만·신유·축복·재림’을 말한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시

작과 과정, 결과에 대한 것을 다루며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의 전 과정을 설명하는 핵심주제가 되기도 한다. 오중복음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적용시키고 실천하고자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 ‘삼중축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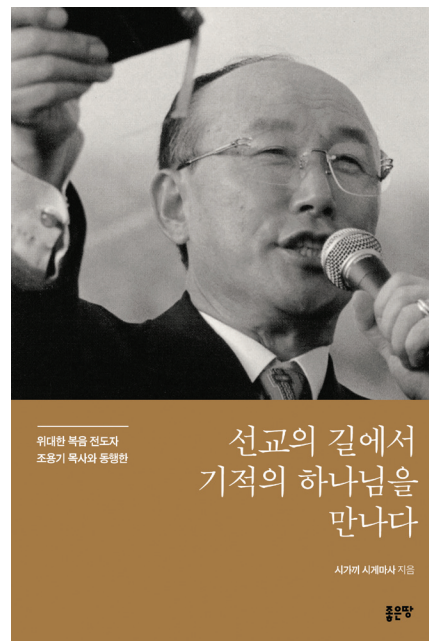
삼중축복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근거한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범사가 잘되는 축복, 강건하고 장수하는 축복’을 의미한다. 조용기 목사의 이러한 신학적 견해는 ‘4차원의 영성’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실천적으로 발전했다. 물질의 세계를 3차원으로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4차원의 영적 세계로 묘사한 조용기 목사는 4차원의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네 가지 방법인 ‘생각·꿈·믿음·말’로 희망을 삶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는 늘 설교에서 고난당할 때 기도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야 한다며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고 받은 줄로 믿고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조용기 목사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어도 주님 의지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조용기 목사와 동행하며 선교의 현장들을 기록하다

「선교의 길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다」 출간



순복음일본총회 총회장이며 순복음동경교회 담임목사인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가 천국 가신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와 전 세계 70개국, 350개 도시 이상을 다니면서 조용기 목사의 선교 순간들을 생생하게 목격하여 기록한 책인 「선교의 길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다」를 출간했다.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세계 선교사로 38년 이상 동행하였다. 현재 순복음일본총회 총회장, 순복음동경교회 담임목사 등을 맡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는 출간

을 축하하며 “이 책을 통해 성령님이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신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라고 서평했다.

